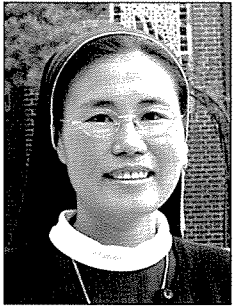


청소년 성교육의 새로운 접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 관련 정보와 자료는 넘쳐나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의 현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한국 틴스타 대표 배마리진 수녀에게서 그 해결책을 들어본다.



배 마 리 진 수녀
 착한목자수녀회
 한국 틴스타 대표

얼마 전 지방에 계신 틴스타 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성인인 자신이 보기에 민망한 내용의 만화를 소위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모 협회가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만화는 할머니와 청소년인 손자를 등장시켜서 주제별로 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르쳐 주는 형태를 담고 있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성인용 비디오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관계를 맺는 장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학생이 원조교제를 통해 용돈을 벌고 성병이 걸린다는 내용, 콘돔만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은 안전할 것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 지적받게 된 것이었다.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법을 알고 있다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교육이 시급하게 행해져

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 성교육의 초점을 대처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마치 기초 없는 건물의 근본 문제를 땀질로 견뎌내려가는 방법 밖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엇이 가장 좋은 성교육 방법이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학 위주의 교육풍토가 만연하고 물질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사회현상 안에서 험난하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성교육의 목표는 성을 그 의미와 기능대로 총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원래 모습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은 대부분이 피임법이거나 성폭력 예방법 또는 단순한 순결교육이거나 해부 생리에 치중한 것이 현실이다. 성교육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실 성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그러한 성에 대

한 정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부재와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두세 개씩 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점점 아프고 병들고 말 것이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7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제4회 국제틴스타 회의에서 만난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대표들의 발표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 나라 정부에서는 에이즈 예방법으로 콘돔을 대량으로 보급했지만 콘돔이 에이즈 확산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창궐하자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도, 에이즈협회도 성교육의 시각을 인공피임에서 정결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틴스타 프로그램이라고 발표했다.

우간다의 경우, 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자, 10년 전만 해도 겁 없이 매년 30% 이상의 감염률을 기록하며 상승하던 에이즈 발병률이 2002년 이후 두 자리 숫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콘돔이 에이즈나 여타의 성병을 막아 준다는 망령으로부터 벗어난 결과이다.

사실, 어떤 피임법도 100%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 하물며 정자 크기의 45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어떻게겠는가? 에이즈는 임신하고는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콘돔이 성병과 임신을 완전히 막아줄 것이라는 콘돔신화의 망령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태국과 같은 무서운 현실

을 맞이할 것이다. 태국과 필리핀의 예는 콘돔으로 대표되는 인공피임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1984~87년 사이에 보고되었던 에이즈 환자의 수가 태국은 112명, 필리핀은 135명이었지만, 태국은 현재 75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현재까지 1,935명만이 에이즈 환자로 보고되어 있다. 불과 20년 사이에 왜 이렇게 현격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가?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서 국민정서가 인공피임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고 태국은 국가의 콘돔 사용 정책을 국민들이 따랐다는 결론이다.

인공 피임식 성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런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하루빨리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다.

성교육 어디에서 어떻게?

물론 성교육의 접근을 총체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단지 에이즈의 확산을 막자는 의도에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올바른 성교육이 많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분화·성장되는 전 과정 안에서 유전적·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의 성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어느 단계에서만 이뤄내야 할 과업도 아니고, 학교나 교회 또는 가정 중 어느 한 곳만이 성교육의 장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성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고, 성교육하면 청소년 성교육을 얘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교육의 시작은 수태되는 순간부터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생명

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교육은 새 생명이 시작되면서 각 단계로 옮겨 갈 때마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 시도해야 한다. 우리가 보통 학교나 사회에서 하는 성교육은 어쩌면 2차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성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일차적인 성교육자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전수되는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성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우선 가정에서 본다면, 성(性)이라는 주제가 아직까지 우리 문화 안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일면에 갇혀, 함께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부분으로 남아 있고, 한편 자유분방한 가정에서의 부부 중심의 생활이 성교육 차원에서 역기능을 분출시키기도 한다. 결국 대부분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에 대한 양질의 지식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의 상황은 어떤가? 선생님들 자신도 유관 교과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다.

또 성교육의 전체적인 틀이 없는 것도 문제이며 담당교사 재량에 의해 학교 전체의 성교육의 틀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성지식 전달에 주안점을 두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순결 등 성윤리만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다. 또한 개인별, 신체발달 상황을 고려치 않고 평균치로 성교육을 하다보니 사춘기를 지난 학생은 시시하게 들리고 아직 미성숙한 학생은 당황하는 등 부작용도 많다.

지역사회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사족 같은 것이 현실이다. 음란 비디오, 인터넷, 음란 전화방, 대중매체 등 성의식을 오도시킬 만한 요소가 도처에 깔려있는 실정이다. 아침마다 지

하철 입구에서 나눠주는 무료신문 속에는 성을 상품화한 광고가 수없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구걸하고 있다.

성교육이 처한 이러한 현실 안에서 과연 바람직한 성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성교육은 하루 몇 시간의 수업 형태로 끝내야 할 속성과의가 아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이뤄내야 할 업무도 아니다. 부모, 형제자매, 교사, 교과서, 전문서적, 영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성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므로 다른 기관은 보조성의 법칙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의 초점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틴스타는 무엇인가?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 미국 내 십대들의 성문제 해결을 고민하시던 미국 의료선교수녀회의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이 만들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는 신학자, 사회학자, 교육자, 심리학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총체적인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28개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다.

틴스타(Teen STAR)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본 성교육(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xt of Adult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책임감 있는 성적 태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교육은 십대들을 위한 가치지향적인 프로그램이며, 부모의 협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식력의 양상을 경험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경험에 의거한 학습

방법은 십대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장차 그들이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형태의 삶-사회적, 정서적, 이성적 그리고 영적인 삶-속으로 통합 시키도록 도전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과과정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이 프로그램은 생식력과 그들 감정의 양상에 대한 자신들의 발견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개인적인 상담은 학생들 자신이 선택한 어떠한 행위의 결과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념 위에서 성과 생식력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준다, 셋째 틴스타는 성인의 삶에 대한 청소년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해답을 적절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찾고 발견하도록 유도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참가 예상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모임이 마련되어 있고, 프로그램 안에 세 번의 부모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하는 마지막 부모모임이 그것이다. 이렇게 부모모임을 성교육 안에서 병행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성교육의 책임과 권리가 부모에게 있음을 존중하고, 프로그램이 자녀와 부모와의 교량역할을 하고, 부모들이 이러한 기회를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한 성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강화시키는 데 쓰면서, 자녀들의 성을 책임감 있게 보살피면서 충만하게 계발하도록 지원하려는데 있다.

틴스타 프로그램은 적어도 한 학기에서 두 학기의 기간이 필요한, 장기적이고 내밀하게 접근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매일 점액관찰법을 통해 여학생들이 생식력을 자각하도록 돕고, 남학생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 감정을 체크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는 방법



틴스타 지도자 과정 연수 중의 모습.

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생식력의 주인으로 살도록 돕는다. 그것은 학생과 교사와의 신뢰 그리고 부모의 협조를 바탕으로 긴 여정을 함께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틴스타의 구성은 중학생 틴스타, 고등학생 틴스타 그리고 젊은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총체적인 성으로 나뉘어 있다. 특별히 생식생리에 관한 부분은 남, 여 분반하여 남학생들은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은 여자 교사가 가르치게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틴스타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비교집단과 현격한 차이로 성문제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에서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사람 중 아직까지 한 명의 학생도 낙태를 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지난 1월과 8월, 5차례의 틴스타 교사 연수회를 수료한 사람이 약 200여 명이 되었고 현재 서강대학교 틴스타, 경희대학교 틴스타를 포함해서 약 11개의 소모임이 활발하게 틴스타 정신을 실천·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틴스타 소모임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하고, 교사들을 질 높게 양성하며, 프로그램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검증 을 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도 넓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도 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회, 사찰, 그리고 직장에서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에서 시작했지만 범종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타 종파에도 활짝 문을 열어 놓았는데, 그 때문에 지난 6차 교사 연수회에는 개신교 성상담소 전문가들도 수료하였고, 7차에는 한 분의 목회자도 수료했다.

또한 팔목할 만한 것은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강대, 경희대,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가정주부들, 교회의 젊은이들이 틴스타 철학에 영감을 받고 매력을 느껴서 스스로 실천하고, 공부하고, 전파하고 있다. 마치 이러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현실에서, 젊은이 들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다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실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틴스타에서는 학생들과 젊은이 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자발적인 건전한 성문화 운동으로 틴스타의 정신을 전파할 생각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다. 틴스타 교사 연수회를 통해서 배출된 교사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머무는 현장에서 틴스타 연구모임이나 소모임을 만들고 틴스타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생명의 봉사자들이 되는 것이다.

한국 틴스타의 가장 큰 희망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생명과 건전한 성문화 운동에 동참 하는 모습이다. 틴스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다. 🐣

〈그림 1〉 틴스타 어디에서 어떻게?

